

정신과 감각의 키를 높여주는



식물성 미술세계로의 지적인 횡단

고은희_마음산책 편집장



미술, 비평가, 박영택, 식물성의 사유

책을 만드는 사람은 이럴 때 “유레카”를 외치지 않을까. 독자로서 읽고 싶었던 책을 편집자의 손으로 만져보는 바로 그 순간. 흔치 않은 순간인 만큼 이러한 원고를 만날 때면 애써 스위치를 올리진 않아도 눈에 빨간불이 반짝 들어온다. 그 후부터는 웬만한 어려움쯤은 ‘즐거운 고통’으로 자동변환이다. 내게는 《예술가로 산다는 것》이 그러했고, 《식물성의 사유》가 그러했다. 그리고 보니 저자가 같다.

숨어 사는 예술가들의 작업실 기행산문집 《예술가로 산다는 것》이 읽는 이의 가슴과 영혼의 체온을 높여주는 책이라면, 《식물성의 사유》는 한마디로 정신과 감각의 키를 높여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저자의 두 번째 저작 《식물성의 사유》에 담긴 식물들의 세계는 나직하고, 작고, 고요하다. 말이 없는 대신 온몸으로 표현하는 그 세계는 수화를 닮아 있다. ‘말없음’으로 인간들이 뿔어대는 온갖 소음과 악취, 탐욕과 어리석음을 끌어안아 치유한다. 나무와 숲이라는 공기정화기가 오염된 공기를 빨아들이고, 작고 여린 풀잎은 인간의 발아래 깔리는 것으로 인간의 욕망에 브레이크를 걸고, 해지고 튼어진 마음을 꽃 한 송이가 봉합해 주기도 한다.

바로 그럴 때 ‘식물성’은 인간을, 인간의 삶을 살리는 하나의 방편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있는 듯 없는 듯 무심히 존재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생색내지 않고 자신의 할 일을 훌륭히 수행하는 식물성의 세계. 이러한 ‘식물성’을 하나의 화두로 해서 한국현대미술 횡단을 시도한 이가 미술평론가 박영택이고, 그 결

과가 바로 《식물성의 사유》다. 당대의 미술을 평가해야 하는 부담과 도판확보의 어려움이라는 이중의 금줄을 건어낸 이 과감한 시도는 그동안 익숙하게 보아왔던 서구의 명화중심 그림 보기, 유명화가 위주의 화집, 화가의 뒷이야기를 다룬 책들과는 색깔을 달리하면서 기왕의 책들에서 맛볼 수 없었던 신선함을 선사한다.

열네 개의 항목(풀, 꽃, 씨앗, 사군자·탈사군자, 나무, 숲, 산, 땅, 새, 하늘, 바다, 돌, 정물, 풍경·반풍경)은 단순한 집합이나 나열에 그치지 않는다. 그 안에는 우리 현대미술의 진경이 만개해 있다. 그동안 그 누구도 보여주지 못했던 우리 현대미술의 기운생동이 100명의 작가와 104점의 작품을 통해 오롯이 뿔어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관습적인 시선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예술가들이 자연과 식물을 매개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기존의 소재주의로만 공들여 그려진 그림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작품들이 어떻게 우리의 고정관념과 길들여진 시선을 벗겨나가는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대목이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우리 선조들은 자신의 주변에 실재하는 나무를 세면서 하나씩 그 이치를 깨달아갔다고 한다. 이른바 ‘격물치지’의 자세.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책을 만드는 동안 나는 104점의 작품들과 하나하나 눈을 맞추어가면서 세상의 이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나와 내 주변을 낯설게 바라볼 수 있었다. 이 책을 두레박삼아 새로운 인식의 단물을 가득 퍼올리는 기쁨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